

제340회 국회  
(임시회)

#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2 호

국회 사무처

2016년2월15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3.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부의된 안건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제출) ..... 1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제출) ..... 1
3.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2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제출)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제출)

(10시0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6년 2월 15일과 17일 양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6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6년 2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

리검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10시0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설 명절 잘 쇠셨습니까?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생생한 민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고 쓴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계신지, 아니 버티고 계신지 바닥 민심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까지 저렇게 쏘는데 그동안 우리는 국방비를 그렇게 쏟아붓고도 도대체 뭘 한 거냐? 당장 북한 핵에 대한 뽏족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당장 내일모레면 퇴직인데 아직 대학 다니는 아이 학비도 들어가야 하고 나중에 장가는 어떻게 보내지?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하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줄담배만 피우게 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식 취업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을 차마 뵈 면목도 없고 짹짹한 설 연휴 단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라도 보탬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는 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낳으면 보육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보육료를 주니 마니 실랑이를 벌이느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동네북이냐’라고 열변을 토하는 주부님들도 계셨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당장 거리에 나왔게 생겼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지 평소 때 서민들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이라도 있느냐’면서 호통을 치시는 전통시장 상인도 계셨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국회는 매일 싸움만 하느냐, 경제를 살리지 못할 거면 국회부터 당장 문을 닫아라’라는 편찬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푸념과 한탄 그리고 분노에는 서민들의 팍팍하고 고된 삶,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특히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저는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민생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오로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호정치가 아닌 생활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말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수는 없었을까, 경제 살리기에 더 매진할 수는 없었을까,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우선 정치를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는 없었을까, 여러 자책감이 듭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사구시의 민생만을 생각하고 여민동락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에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국회에 던지는 질문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은 더 큰 도전과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안보위기의 먹구름 속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여야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설 명절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침체, 저유가 등 세계 곳곳에서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새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 줄 방과제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통일 대박의 원대한 꿈도 함께 꾸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 실험이었습니다.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의 국방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구축에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만 반대만 할 것이 아

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으로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포와 과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당해 왔던 치욕의 역사를 돌이켜봐라. 그러면 강력한 안보대응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때 평화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 위협에 대해서 여야가 인식을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법과 테러방지법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원 철수하여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습니다. 북한

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 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잠재성장률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만 달러 시대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구조개혁 없는 단기 부양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 금융 공공 교육 4대 개혁은 반드시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려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보듬어 드려야 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 법안인 파견법은 파견 확대를 통해서 5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법안입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일괄 처리되어야 합니다. 벌써 몇 달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일자리 역시 제조업을 중심 해서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이 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고, 매출액 10억 원당 전자업체가 0.6명을 고용할 때 종합병원은 7.7명을 고용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일자리산업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업 발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서비스산업 비중을 70%로 끌어올리면서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열어갔다는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60% 수준으로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 호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69만 개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증가하면 약 59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노다지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서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입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발의된 지 4년이 다가고 있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은 우리 경제를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서 거친 쓰나미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법안입니다.

지금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이에 대비한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경제 방파제를 제대로 쌓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거듭 호소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원성도 매우 큼니다.

누리과정은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3세에서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부금이 41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전액 교부했습니다. 더욱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3000억 원을 우회 지원까지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늘어나 재정 여건이 충분합니다.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 드린 누리과정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셨습니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불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님, 경기도 교육감님, 그리고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들!

지금 타들어 가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새누리당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젊은이는 혈값에 살 수 있는 시대’ 요즘 젊은이들의 씩씩한 현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미래 한국 경제를 저격하는 예고된 인재입니다. 노동시장의 약자인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조연이 아니라 당당히 주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잘못된 관행과 청년 일자리 대못을 과감히 뽑아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나 교육 없이 청년 인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당정은 열정페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달부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청춘 감동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들의 권리와 의무를 천명하는 일종의 청년 대헌장을 만들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가칭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청춘의 희망 성장판을 함께 키워 나가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해서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총 20개 법안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이미 13개 법안이 입법 완료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기업집단 소유 지배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영역에 메스를 가한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을 박근혜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4개월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격차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기득권과 이권, 특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공익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만장일치법입니다.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에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해 무조건적 합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직권상정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장일치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소수당 독재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이 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 국회, 뇌사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민의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진화법 체계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90%가 찬성을 하는 법안이 있다 해도 특정 소수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수년간 방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시급한 법안을 불모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이나 현안들을 끼워 팔기 식으로 처리하는 병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 없이는 우리 국회가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국회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초경쟁시대와 세계경제 한파 속에서 의회의 빠르고 신속한 입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지금 우리만 선진화법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진화법이라고 쓰고 후진화법이라고 읽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식물 국회, 무능 국회, 뇌사 국회라는 오명은 이제 19대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20대 국회부터는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야당의 전향적이고 대응적인 동참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시간에도 자동차, 선박, TV, 스마트폰, 반도체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K-pop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가 예술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온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또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어 낸 무서운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북한 핵실험 도발 이후 전역을 연기한 국군 장병이 무려 1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해병

대에 자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이 넘쳤습니다.

이제 19대 국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엄동설한의 한파 속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에 나서 주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응답할 차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임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밤을 새서라도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국민의 희망을 한데로 모으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최단기간 내에 극복하며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전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 기름 유출 사고로 뒤덮였던 태안반도의 시커먼 바다와 땅을 새하얗게 채웠던 130만 자원봉사자의 힘, 그리고 월드컵사상 첫 4강 신화를 썼던 붉은 악마들의 거리응원 물결까지 우리 민족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수한 DNA가 있습니다.

국민만이 희망입니다.

한강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한강의 기적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원유철 대표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제340회 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2016. 2. 10~2. 23

일 자	부의안건	비 고
2. 11(목) ~ 2. 14(일)		○위원회 활동 - 법률안 등 안건 심사
2. 15(월)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2. 16(화)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계속)	○더불어민주당
2. 17(수) 10:00	1. 정치·외교·통일· 안보·교육·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일 자	부의안건	비 고
2. 18(목) 10:00	1. 경제에 관한 질문	
2. 19(금) 10:00	1. 안건심의 ※휴회결의	○2. 20~2. 22 (3일간)
2. 20(토) ~ 2. 22(월)	휴 회(3일간)	○위원회 활동 - 법률안 등 안건 심사
2. 23(화) 10:00	1. 안건심의	

※2016년 2월 24일(수) 이후 의사일정은 추후 작성

**○출석 의원(236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영희	김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운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재옥 이강후 이명수 이상일 이완영 이이재 이재영 이종진 이찬열 이학재 이현재 장병완 진하진 정문헌 정세균 정윤숙 조경태 주승용 진영 최동익 하태경 함진규 홍일표 황우여  
 유의동 윤명희 윤호중 이개호 이목희 이석현 이우현 이인영 이재오 이종훈 이채익 이한성 인재근 장정은 진해철 정수성 정의화 조원진 주호영 천정배 최민희 한기호 홍문표 홍지만 황인자  
 유인태 윤상현 윤후덕 이노근 이미경 이언주 이운룡 이인제 이종걸 이주영 이철우 이해찬 임내현 전병헌 정갑윤 정병국 정용기 정청래 조정식 진선미 최경환 최봉홍 한선교 홍영표 홍철호 황주홍  
 유일호 윤영석 은수미 이만우 이병석 이에리사 이윤석 이장우 이종배 이진복 이학영 이현승 임수경 전순옥 정두언 정성호 정우택 정호준 조해진 진성준 최규성 추미애 한정애 홍의락 황영철 황진하

심재권 양창영 오제세 유기홍 유의동 윤재옥 이병석 이완영 이장우 이종배 이찬열 이현승 장정은 정문헌 정용기 정청래 진성준 최민희 함진규 홍철호 황주홍  
 심재철 염동열 원유철 유대운 유일호 윤후덕 이상일 이우현 이재영 이종진 이채익 이현재 전순옥 정미경 정우택 조원진 진영 최봉홍 홍문표 황영철  
 안효대 오신환 원혜영 유승민 윤관석 은수미 이언주 이윤석 이재오 이주영 이철우 인재근 전하진 정세균 정윤숙 조해진 최규성 한기호 홍일표 황우여  
 양승조 오영식 유기준 유은혜 윤명희 이강후 이에리사 이인제 이종걸 이진복 이한성 임내현 정갑윤 정수성 정의화 주호영 최동익 한선교 홍지만 황인자

○개의 시 재석 의원(153인)

강기윤 강창희 길정우 김동완 김상훈 김영우 김을동 김제남 김태원 김희선 노영민 문정림 박대동 박병석 박윤옥 백균기 서상기 송영근  
 강길부 경대수 김관영 김동철 김성주 김용남 김장실 김종태 김태호 김희국 김희선 노철래 문희상 박덕흠 박주선 서용교 신경립  
 강석호 권성동 김기식 김명연 김승남 김우남 김재원 김종훈 김학용 김희정 류성걸 류성준 민병주 박명재 박홍근 변재일 서청원 신문식  
 강석훈 권은희 김도읍 김상민 김영주 김정훈 김춘진 김태흠 김희국 노영민 류성걸 문희상 박대동 박범계 박창식 백재현 서영교 신학용 안규백  
 강석훈 권은희 김도읍 김상민 김영주 김정훈 김춘진 김태흠 김희국 노영민 류성걸 문희상 박대동 박범계 박창식 백재현 서영교 신학용 안규백

○산회 시 재석 의원(181인)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박광운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학용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욱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우현  
 이이재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청가 의원(19인)

강동원 김제식 민홍철 박민수  
 박완주 박원석 박혜자 배재정  
 서기호 안민석 우원식 유성엽  
 이상민 이원욱 이자스민 장윤석  
 장하나 진정희 최원식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형준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일부장관 홍용표  
 법무부장관 김현웅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보고사항】

○의원 당직 변경

의원명	선거구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권垠希	광주 광산구을	무소속	국민의당	2016. 2. 5
김관영	전북 군산시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김승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김영환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김한길	서울 광진구갑			
문병호	인천 부평구갑			
박주선	광주 동구			
신학용	인천 계양구갑			
안철수	서울 노원구병			
유성엽	전북 정읍시			
임내현	광주 북구을			
장병완	광주 남구			
주승용	전남 여수시을			
천정배	광주 서구을			
최원식	인천 계양구을			
황주홍	전남 장흥군 강진군영암군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신기남	더불어민주당	탈당	2016. 2. 14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6. 2. 11 조원진·권은희·김용남·김종태·  
 문정립·박성호·유의동·이상일·이이재·  
 이재영·이종배·홍철호 의원 발의)  
 2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2016. 2. 12 김기식·이학영·신경민·우원식·홍영표·유기홍·이미경·신기남·한정애·박홍근·장하나·진선미 의원 발의)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6. 2. 12 하태경·정희수·함진규·이노근·박대동·정갑윤·이채익·강길부·손인춘·이만우 의원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6. 2. 12 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으로부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자 2월 15일, 2월 16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2016. 2. 12 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으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7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2016. 2. 12 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8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6. 2. 15 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으로부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자 2월 15일, 2월 17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2016. 2. 15 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으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8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2016. 2. 15 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9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의안 철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6. 2. 12 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으로부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자 2월 15일, 2월 16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2016. 2. 12 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으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7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2016. 2. 12 원유철·이종걸 의원 외 264인 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8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이상 3건 2월 15일 제출자 철회 요구